

검찰, 박병대 ·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으로 처음
양승태 '사법농단' 지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사진 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분들이다. 따라서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이 사건 전도

를 밝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핵심 중간 책임자'인 임종현(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뒤 연일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지난달 19일과 23일에 처음 포토라인에 섰고, 수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정급 법관이나 실무부서에서 일해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 법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전법기업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한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전임 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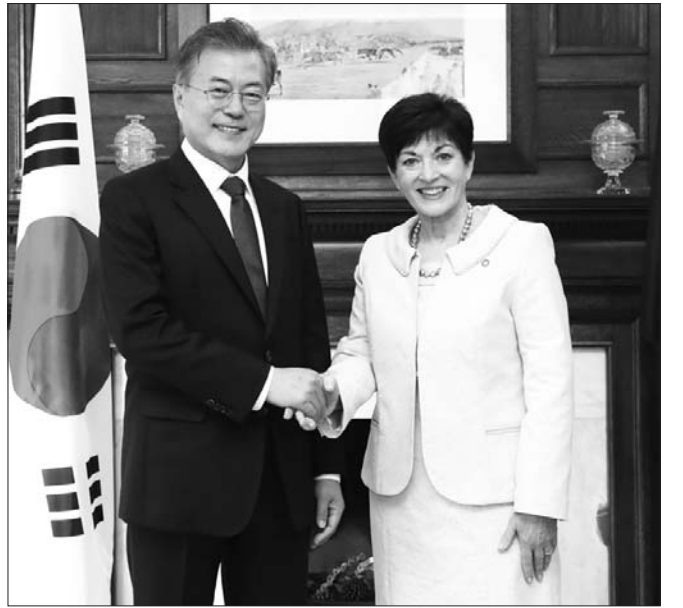
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판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이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법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관련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 기일을 미루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의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법과 변호사단체 부당 사할 등 전방위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추가적인 재판 개입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이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물고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뉴시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클랜드 총독관저에서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과 우정이 친구처럼”

문 대통령,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와 협력 방안 논의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팻시 레디 총독과의 환담으로 본격적인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총독 관저에서 레디 총독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정 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윤종원 경제수석, 조현 외교부 1차관, 여승배 주뉴질랜드 대사 등이 참석했다.

뉴질랜드 측에서는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 데보라 질스 외교부 북아시아 국장, 셰이머스 던 외교부 북아시아 한국 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레디 총독의 안내로 관저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현관에 마련된 방명록에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정이 깊고 친구처럼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 내외와 레디 총독은 자리를 옮겨 환담을 나눴다.

한국말로 "환영합니다"라며 환영사를 시작한 레디 총독은 "비가 많이 오는 늦겨울이 오셨다. 대통령님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뉴질랜드 첫 국빈방문을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한반도에서 굉장히 놀라운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 짧은 일정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총독께서 환영해 주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마오리족과 함께한 환영행사가 매우 뜻깊고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환담에 앞서 레디 총독 주관의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그레고리 보른 뉴질랜드 총독 비서관과 마오리 단지의 영접을 받은 문 대통령 내외는 코를 만지는 마오리족의 전통 인사방식인 'Hongi'로 인사하며 뉴질랜드 문화의 존중의사를 나타냈다.

이어 전통 복장 차림의 마오리족이 준비한 환영노래와 춤(Haka Powhiri)을 함께 관람했다.

한편, 뉴질랜드 제1야당 대표인 사이먼 브릿지스 국민당 대표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호텔에서 브릿지스 대표를 만나 한·뉴질랜드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내 우리 기업과 동포들이 뉴질랜드의 경제·사회 발전과 두 나라 관계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포의 권익 신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브릿지스 대표는 두 나라 관계가 계속해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박사골 옛날 쌀엿’ 원이숙, 전통식품명인 지정

전북도내 12번째
품질 우수성 인정받아



도내 12번째 제80호 전통식품명인이 탄생했다.

전북도는 임실군 '박사골 옛날 쌀엿' 원이숙 대표(69)가 2018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80호로 지정되면서 전북 도내 12번째 식품명인이 탄생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명인은 식품제조업의 전통성과 정통성은 물론, 해당 식품기능의 계승 필요성과 그 보존가치를 따져 현장심사 및 심의회 절차를 거

쳐 국가에서 지정한다. 전국 총 84명의 명인중, 전라북도 식품명인은 12명으로 그 중 10명이 활동중이다.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깨끗하고 질 좋은 쌀과 엿기름에 30년 경력 원이숙 대표의 손맛이 더해진 박사골 옛날 쌀엿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찾는 이들이 많다.

도 농식품산업과 조효일 과장은 "앞으로 도내 식품명인들의 홍보 및 관촬활동은 물론 향후 더 많은 향토음식들이 그 전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중 무역협상, 18일에 방향”

미중 무역협정이 90일 간의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인 오는 18일에 양국간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3일(현지시간) CNBC에 "12월18일은 중국이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만약 그 날이나 그 후에 중요한 발표 없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중국이 이것을 경제와 산업 정책을 바꾸기 위한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 분쟁은 90일 내에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